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상정된 안건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6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6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6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 의결하기 전에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 6명 전원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정신은 소수 정당의 의견들과 다수 정당의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3 대 3이라는 여야의 동수를 맞춰서 충분히 숙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보자라는 것이 소위 안전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우리 선배 의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이 어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시에 산회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또 그 가운데 국회법상 최연장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 임시의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회의를 이어 가셨습니다.

국회법 74조에 의하면 산회한 회의는 당일에 다시 개최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가 예외라는 조항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임시의장이 산회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국회법을 보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위원장의 권한과 안전조정위원회 임시의장의 권한이 구별되어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시의장은 개회는 할 수 있고 정회는 할 수 있지만 산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안전은 저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전은 90일이 지나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에 관해서도, 이제 내일이면 AI 디지털교과서 25년 도입에 관한 검정교과서 발표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나오면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야당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야가 의견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는 갑자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자는 법을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소급 적용까지 하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교과서 업체의 혼란은 사소합니다. 더 큰 혼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해 오고 그 많은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정책을 믿고 준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AI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의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할 일이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권을 박탈한다는 정말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쌓은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역할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마치고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어제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진행한 안전조정위원회의 소위 의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리고 추후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 나가지 마시고, 제 발언까지 듣고 나가시지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데요.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어제 간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간사님, 얘기 듣고 나가셔야 돼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저는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얘기 듣고 나가셔야 돼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훈 위원 퇴장)

○**위원장 김영호** 유튜브로 확인하시겠지요, 뭐.

○**문정복 위원** 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안전조정위에 회부됐고 저희는 충분히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시까지 안전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제출하게 했고, 국민의힘도 제출했어요. 조정훈 위원과 김대식 위원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8시에 개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대식 위원만 들어오고 조정훈 위원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간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대식 위원님께서 최연장자니까 당연히 준비위원장이 되시잖아요. 준비위원장의 역할은 회의 개회를 시작하고 위원장을 뽑는 역할까지만 준비위원장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그냥 개의를 하시고 산회를 하셨다면 저희는 거기에 수긍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시다시피 회의를 진행해 버리셨어요. 회의를 진행해서 위원장 선임 절차까지는 들어가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위원님이 문정복 위원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해서 가지고 정회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회의를 산회할 수도 없고 다시 속개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기다려 보자, 조정훈 위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훈 위원은 연락도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보좌진이 연락해 봐도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김대식 임시위원장께서 8시 반에 속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시 반에 속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후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을 하지 않고 갑자기 산회를 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과 그다음에 행정실의 검토를 받았고 이것은 산회를 할 수 없는, 산회의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머지 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주 정식적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들어왔어야지요. 들어오고 본인들이 분명히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사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임시위원장은 이미 회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이런 어설픈 광경이 벌어지는 이 사태를 봤을 때 정말 허술하다, 정말 허술하다. 우리가 협조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법적 절차 밟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밟으라고 하십시오. 저희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진행을 한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사실 어저께 현장에 없었는데요. 어저께 저녁 늦게 국회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원장실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어저께의 문제를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특별위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47조 2항을 준용한 것이다. 위원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해 명문 규정이나 명시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직무대행 스스로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넘기겠다고 발언한 만큼 직무대행의 역할이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올린 본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2021년 8월 문체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당시 2교섭단체 이달곤 직무대행이 정회를 선포했으나 45분 후에 제1교섭단체 이병훈 위원이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속개하고 조정안을 의결한 선례가 있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AIDT 문제 어제께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AIDT 추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한번 정부 차원에서 잘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지를 하면 왜 지지를 받고 있는지 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이렇게 야당에서, 저희가 반대 법안으로 이것을 잠시 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 업체들의 큰 혼란을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교과서 업체의 혼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점검하고 이분들의 혼란함을 잘 추스르고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AIDT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조사된 것은 고민정 위원님께서 몇 달 전에 교사 2만 명에게 여론조사한 것과 또 학부모님들 그때……

○**고민정 위원** 1000명.

○**위원장 김영호** 1000명에게 했던 것. 그때는 교사의 90%가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고 학부모들은……

○**고민정 위원** 3:3:3이었어요.

○**위원장 김영호** 3:3:3?

○**고민정 위원** 모른다가 3.

○**위원장 김영호** 아, 모른다가 3, 반대가 3.

○**고민정 위원** 찬성이 3.

○**위원장 김영호** 3:3:3, 학부모님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한번 꼭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문정복 안전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 오시는 데 다들 고생하셨지요. 저도 겨우겨우 왔습니다. 이틀간 최대

43cm의 눈이 수도권에 내렸습니다. 117년 만에 최대 폭설이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 그리고 겨울을 통틀어서도 역대 3위에 해당되는 눈이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육위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폭설로 인해 학생들 등굣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폭설로 재택근무하고 대학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초중고등학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확인했더니 학교를 늦게 온 교사분들도 또 직원분들도 학생들도 태반이 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럴 수 있지요.

○김준혁 위원 학교 급식 차량도 못 와서 아마 오늘 급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에, 그 학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8시 15분에 학교에서 휴교라고 하는 연락이 왔다, 이 시간이면 이미 출근한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등굣길에 뒤늦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직장인 부모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재량휴업이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재량휴업을 지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지자체별로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6시 2분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경기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 개별 초등학교에 재량휴업을 권고하는 경기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각 학교에 재량휴업 권고 공문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라도 공문을 보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미 어제 일기예보가 있었던 만큼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설이나 폭우 또 어떤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예보되는 경우에 그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이라도 일찍부터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에게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주호 장관님, 선제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서 사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조치들을 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사전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처음 있는 대설인데 저희가 대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큰 자연재해로 생각하는데, 대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금 더 긴장해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2)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5)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10시19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다음은 문정복 안전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장 문정복 안전조정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7일 회의를 열어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가결한 조정안은 고민정 의원,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이며 지난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4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그간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범위

를 확대해 온 취지와도 상반되며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고 또 지역 간 학교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자료는 저작권이 걸림돌이 되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고 이미 교과서 검정 절차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2025년 계획대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가운데 개정안 부칙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소급입법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AIDT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셨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법사위에서 또 논의도 있고 해서 계속 좀……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가 통과된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계속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거부권 행사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이나 언급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일 우선 AIDT 추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또 교사 선생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것 대통령 거부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렇게 저의 의견을 또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책기획관 배동인